

고려시대 『釋苑詞林』의 書誌와 내용 연구

A Study on the Bibliography and Contents of *SeokwonSarim* in the Goryeo Dynasty

朴 鎔 辰 (Park, Yong-Jin)*

◁ 목 차 ▷

- | | |
|----------------------|-------------------|
| 1. 머리말 | 3. 『석원사림』의 구성과 내용 |
| 2. 『석원사림』의 서지 및 문자이동 | 4. 맺음말 |
| 2.1 서지사항 | <참고문헌> |
| 2.2 피휘와 목등 | |
| 2.3 『석원사림』의 문자이동: | |
| 『광흥명집』 권제23의 誄文 대교 | |

<초 록>

『석원사림』은 고려시대 대각국사 의천(1055-1101)이 수집하였던 불교의 제문을 그의 사후 원경왕사 낙진과 그의 문도 각순 등 화엄종 문도가 유별로 편정하여 간행한 일종의 佛敎類書로 본고에서는 『석원사림』의 서지와 내용을 중심으로 의의를 분석하였다. 이상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석원사림』은 250권 가운데 권191에서 권195까지 영본 5권 1책의 고려시대 간행 목판본이 서울대학교 규장각에 소장되어 있다. 현전본에는 고려전기의 역대 왕명에 피휘가 있고, 태조 建, 혜종 武, 광종 昭, 성종 治, 목종 誦, 현종 詢, 덕종 欽, 정종 亨, 문종 徽, 순종 勳, 선종 運, 숙종 顯, 隆이며, 1101년에서 1108년 사이의 어느 시점에 완성되어 간행된 것으로 추정된다. 『석원사림』에 수록된 『眞觀禪師碑』에는 12개의 목등이 확인된다. 『석원사림』의 편찬시에는 판독이 불가하였거나, 혹은 후대에 복각이나 중수시 저본의 판독이 불가하였기에 再刻을 위해 해당 부분을 판면으로 남겼을 것으로 추정된다.

『석원사림』의 구성과 내용을 살펴보면, 현전본의 권191에서 권193까지는 비문, 권194는 갈·지, 권195는 뇌문이다. 권195의 뇌문은 『광흥명집』 권제23의 僧行篇 諸僧誄行狀에 동일한 순서와 내용으로 수록되어 있다. 『석원사림』과 비교할 수 있는 초조장본 『광흥명집』 권제23은 현전하지 않지만, 초조장을 반영한 재조장이나 조성금장에는 권23이 현전하므로 대교하였으며, 『석원사림』의 저본이나 계통을 추정할 수 있고, 문자이동을 통해 『석원사림』의 정본화에 참고할 수 있다.

고려의 『석원사림』의 편찬과 간행은 국가적 사업으로 수행된 대규모 편찬 사업으로, 동아시아 한문불교문화권의 교·선종을 망라한 방대한 불교의 제문을 집대성한 점에 그 특징이 있다. 특히 고려전기 『석원사림』의 편찬은 동아시아 한문불교문화권에서 불교 상호 교류를 통해 이루어진 점에서 그 교류사적 의의와 불교문화학적 의의가 있다.

要語: 석원사림, 의천, 낙진, 각순, 불교유서(佛敎類書), 고려피휘, 광흥명집

* 能仁大學院大學校 助敎授(pyj04667@hanmail.net)

투고일: 2020년 2월 10일 최초심사일: 2020년 2월 29일 게재확정일: 2020년 3월 8일
서지학연구, 제81집, 139-156, 2020. <https://doi.org/10.17258/jib.2020..81.139>

<ABSTRACT>

SeokwonSarim is a kind of classical encyclopedias (類書) that is compiled and published by Buddhist texts collected by Uicheon (1055–1101). This study analyzed the significance of bibliography and contents of *SeokwonSarim*. The above is summarized as follows.

There are 250 Volumes in *SeokwonSarim*, and 5 books (Volume 191 to 195) exist at Kyujanggak,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kwonSarim* was completed and published between 1101 and 1108. In the current version, there is a Pihwi (避諱) for the kings of the early period of Goryo Dynasty. Pihwi letters are Taejo Gun (建), Hyejong Mu (武), Gwangjong So (昭), Sungjong Chi (治), Mokjong Song (誦), Hyunjong Soon (詢), Dukjong Heum (欽), Jungjong Hyung (亨), Munjong Whi (徽), Soonjong Hoon (勳), Seonjong Woon (運), Sookjong Ong (顥), Ryung (隆).

There are 12 Mukdeung (墨等) in *SeokwonSarim*'s Jingwanseonsabi (眞觀禪師碑). It was presumed that it could not be read at the time of compilation of *SeokwonSarim*, so it would have been left on the board for later.

The composition and contents of *SeokwonSarim* are epitaphs (碑文) from 191 to 193, 194 are Gal (碣) and Ji (誌), and 195 are Rwe (誄). The Rwe (誄) of Vol. 195 is contained in the same order and content in the Seunghang chapter (僧行篇) of the 23rd *Guanghongmingji* (廣弘明集). This paper compares *SeokwonSarim* with Jaejojang (再雕藏) and Chaochengzhang (趙城藏). This can be used to estimate the Bottom Book (底本) or lineage of *SeokwonSarim*, and can be referenced to the Authentic book (定本化) of *SeokwonSarim* through the differences of letters (文字異同).

Compilation and publication of *SeokwonSarim* in Goryeo is a large-scale compilation project carried out as a national project. In addition, this compilation project is the result of international exchange activities and the achievement of the Buddhism as the mission of the times.

Key words: *SeokwonSarim*, Uicheon, Nakjin, Gaksun, Buddhism classical encyclopedia, Goryo Pihwi, *Guanghongmingji*

1. 머리말

『석원사림』은 고려시대 大覺國師 義天(1055-1101)이 수집하였던 불교의 諸文을 그의 사후 원경왕사 樂眞과 그의 문도 각순 등 화엄종 문도가 類別로 편정하여 간행한 일종의 佛教類書이다. 『석원사림』은 250권이었지만 현재 권191에서 권195의 5권 1책이 남아 있다. 이러한 『석원사림』에 대해서는 서지 및 내용에 대한 연구가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석원사림』에 대한 기존의 연구를 살펴보면, 1930년대 초기 연구로 大屋德城은 『석원사림』이 梁의 『法寶聯璧』, 『內典碑銘集』, 당의 『廣弘明集』의 체례를 모방하고, 이 집록에서 자료를 발췌 초록하여 편찬한 것으로 보았다.¹⁾ 이와 달리 고승전 형식에 따라 유별로 편집한 것으로 보기도 했다.²⁾ 또한, 『석원사림』의 검토에서 주로 제기된 내용은 고려 역대 왕명의 피휘나 간행시기에 대한 것이다. 현전 『석원사림』 권191에서 권195의 5권에는 고려 역대 국왕의 휘에 闕筆이 있어 고려의 간본이며, 최후의 권 끝은 숙종이기 때문에 간행은 숙종이나 예종대로 추정하였다.³⁾ 이는 『석원사림』의 편찬 관련 기록과도 일치하는데, 의천의 입적 이후인 1101년에서 1108년 사이에 편찬하여 간행된 것으로 추정된다.⁴⁾ 이러한 『석원사림』의 피휘에 대해서는 전존 5권에 대해 종합적으로 정리된 바 없다. 또한, 현전본은 고려시대의 간본 여부는 분명치 않지만 판면과 글자체가 다른 부분이 확인되는 바, 후대의 보각이나 중수본으로 추정할 수 있어 상세한 검토가 필요하다.

한편, 『석원사림』의 내용에 대한 연구에서, 선종 승려 관련 자료가 수록된 점으로 미루어 의천의 관심이 화엄종에서 선종 등으로 확대된 것으로 이해하기도 하였다.⁵⁾ 『석원사림』이 의천의 화엄종 문도인 낙진과 각순 등에 의해 편찬되었지만 특정 종파에 편향되었는지의 여부는 보다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상과 같이 『석원사림』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현전본의 서지사항이나 내용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본고에서는 현전본 『석원사림』에 대해 서지적 분석으로는 상세한 서지 조사와 함께 피휘와 묵등, 권195의 뇌문에 대해서는 고려대장경과 조성금장의 『광흥명집』본과의 문자이동을 검토하며, 또한 현전본의 구성과 내용에 대해서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고려시대에 편찬되어 간행된 『석원사림』에 대한 서지적 관심 제고와 함께 동아시아 한문불교문화권에 있어 고려의 불교 유서 편찬의 성과와 의의를 재평가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1) 大屋德城, 『高麗續藏雕造攷』(京都: 便利堂, 1936), 136 ; 『佛教典籍上に於ける高麗義天の事業並に其價値』, 『宗教研究』 2-4(106), 1940, 354. 『法寶聯璧』 220권, 梁元帝의 『內典碑銘集』 30권, 『廣弘明集』 등을 모방한 것으로 보았다.

2) 趙明基, 『高麗 大覺國師와 天台思想』(東國文化社, 1965), 38.

3) 稻葉岩吉, “高麗時代の文籍,” 『內藤博士還曆祝賀支那學論叢』(弘文堂書房, 1926). 한편 고려 역대 왕명의 마지막 피휘는 숙종의 이름인 顯까지이므로 개판은 숙종이나 예종대로 추정한다(大屋德城(1936), 136).

4) 朴鎔辰, 『義天 그의 생애와 사상』(혜안, 2011), 187-202.

5) 許興植, 『高麗佛教史研究』(서울: 一潮閣, 1986), 271.

2. 『석원사림』의 서지 및 문자이동

2.1 서지사항

『석원사림』은 서울대학교 규장각 소장의 목판본이며 국내외 유일본이다.⁶⁾ 국내외의 필사본은 모두 규장각 소장본을 저본으로 한 것이다.⁷⁾ 『석원사림』의 서지사항은 규장각의 서지조사 내용을 포함한 필자의 조사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권수제 : 『釋苑詞林第一百九十一(卷次)』

저자사항 : 高麗沙門 義天集

판종 : 목판본

표지 및 장정 : 改裝, 軟綠菱花紋 비단표지, 包角, 靑紗線裝 5針眼

제침 : 인쇄제침, 4주쌍변

체크기 : 縱24.9cm×橫20.5cm

장수 : 78장(권191 16장, 권192 14장, 권193 16장, 권194 13장, 권195 19장)

판식 : 上下單邊 左右雙邊, 無界, 10행 20자(일부, 19-22자), 半郭 22.1cm×17.2cm.

판심 : 白口, 상하향 흑어미

판심제 : 『釋苑詞林第一百九十一(卷次)(張次)』

인기 : 소장인(卷首題 : 『葦滄藏書』 등 4개, 副葉 : 『京城帝國大學圖書章』)

『석원사림』은 영본 1책의 목판본이며, 간행기록이 없어 간행시기는 알 수 없지만, 역대 왕명의 피휘 등으로 보아 고려시대의 숙종이나 예종대에 편찬되어 간행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권수에 ‘高麗沙門 義天集’이라 기록되어 있어, 고려전기 대각국사 의천(1055-1101)이 수집하였음을 알 수 있다. ‘集’은 집대성, 合聚의 의미이며, 의천이 불교의 고금의 문류를 모았다는 의미일 뿐 직접 편찬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본서는 영본으로 서문과 발문이나 간행기록은 확인되지 않는다. 의천이 지은 서문이 있었다면 그의 문집인 『대각국사문집』에 수록되었겠지만, 의천의 사후 낙진 등 문도에 의해 편찬되어서인지 문집에도 수록되어 있지 않고, 다만 의천과 낙진의 비문 등에서 간략

6)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청구기호: 『古貴 4016-15』. 원문 이미지는 규장각한국학연구원/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에서 원문검색서비스가 되고 있다(<http://kyudb.snu.ac.kr/>).

7) 일본 東洋文庫 소장 『釋苑詞林』은 청구번호 7-3-2, 목서 필사본, 10행 20자, 1936년 1월 25일의 필사가가 있다. 이 책은 규장각 소장본과 같은 체제로 필사하였으며 장수도 78장으로 동일하다. 활자본 번각은 『韓國佛教全書』 권4, 동국대출판부, 1994가 있다. 일부 번각은 齋藤光純, “釋苑詞林,” 『高僧傳の研究』, 櫛田良洪博士頌壽記念會編(東京: 山喜房佛書林, 1973)이 있다. 여기에서는 『全唐文』 등에 수록된 자료는 생략하였고, 말미에는 규장각본과 동양문고본을 대교한 14건의 校異가 있다.

히 언급되는데 그친다.⁸⁾

한편, 본서에는 판면의 서체가 다른 부분이 확인된다. 이 가운데 권제192의 제13장과 권제193의 권수 제1장의 판면 서체의 차이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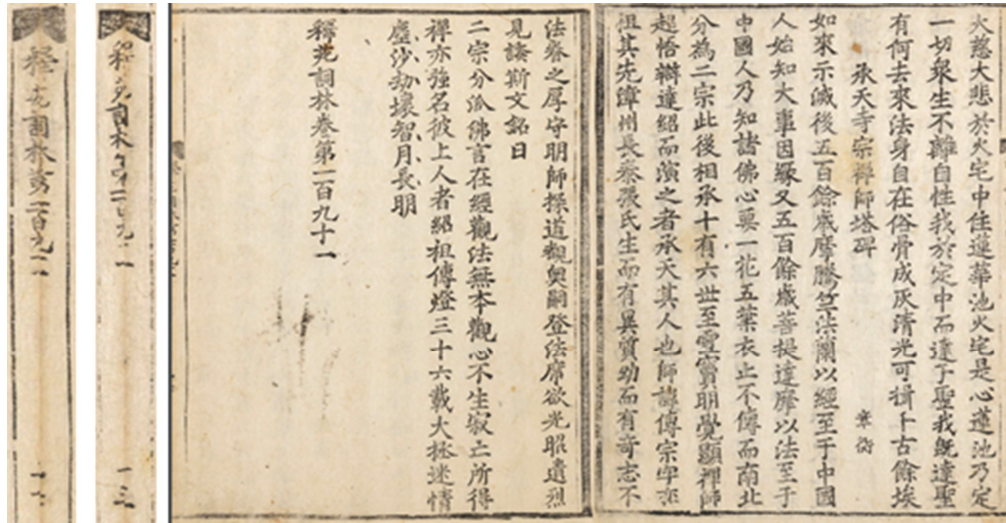
<사진 1> 『석원사림』 판면 字體 異同

위의 <사진 1>과 같이 권제193의 권수 제1장은 글자체가 厚太한 반면 권제192의 자체는 細軟한 차이를 보인다. 현전본은 자체가 고려전기 『대각국사문집』이나 교장도감에서 간행된 교장 불서류와 유사한 점이 확인된다. 다만, 판면의 글자체나 인쇄 상태가 획일적이지 않은 판면은 후대의 補刻이나 重修일 가능성이 있으나 추정에 그친다.⁹⁾

『석원사림』의 현전본의 장수와 장차를 살펴보면, 5권의 장수는 78장으로 권191 16장, 권192 14장, 권193 16장, 권194 13장, 권195 19장이다. 이 가운데 권191의 마지막 장차는 제17장으로 제16장이 결장되어 있다. 권제191의 권말 부분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8) 金富軾, 『開城靈通寺大覺國師碑』(李智冠, 『校勘譯註 歷代高僧碑文』(高麗篇 3) (伽山佛教文化研究院, 1996), 126). “又欲會古今文章 有補於教 以爲釋苑詞林 而未及參定 至後乃成 故去取失當.”; 金富軾, 『陝川般若寺元景王師碑』(『韓國金石全文』中世上, 1984, 567-568), “聖旨賜口釋苑詞(중략) 門人首座覺純等重加詳定以類相從編爲二百五十卷至是歲告畢焉.”

9) 이치림 역대 왕 諱의 末筆을 闕하였기 때문에 고려조 刊本이며, 原刊 간판과 補刻된 간판에 의해 印成되어 일부를 만든 것으로 중수본이며 조선조 간행으로 본다(大屋德城, 『高麗續藏雕造攷』(便利堂, 1937)).



<사진 2> 『석원사림』 권191 제15장과 제17장

위의 <사진 2>의 관심 하단 장차를 보면 우면은 ‘十五’, 좌측면은 ‘十七’로 제16장이 결장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해당 비문인 『承天寺宗禪師塔碑』의 1장 약 400자가 누락되어 있음은 주의가 필요하다.¹⁰⁾

현전본의 소장사항을 살펴보면, 권수제에 『葦滄藏書』가 날인되어 있어 위창 吳世昌의 구장임을 알 수 있다. 뒤에 경성제국대학도서관에 수장되었고, 현재는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의 위탁으로 규장각한국학연구원에 소장되어 있으며 전본의 상태는 양호하다.

2.2 피휘와 묵등

『석원사림』에는 고려전기의 역대 왕명에 대한 피휘가 확인되며, 피휘의 형태는 한자의 마지막 필획을 결획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석원사림』의 고려 왕명 피휘를 권차별로 정리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권제191: 제1장 徽, 詢, 제4장 運, 제6장 (欽), 제8장 建, 誦, 제9장 (運), 詢, 建, 제13장 欽, 昭, 제14장 運, (武), 제16장 昭

권제192: 제4장 (治)(2), (武), (隆), 제5장 運, (武), 제7장 建, 隆, 제9장 建, 誦, 제10장 建, 제13장 昭

권제193: 제2장 運, 誦, 제3장 徽, 建, 제4장 建, 6장 (武), 建, 8장 建, 제9장 隆, 제10장 誦, 제6장, 12장 (武), 제13장 武, 昭, 隆, 제14장 昭, 建, 隆, 16장 昭, 隆

10) 『韓國佛教全書』 권4, 654上, “幼而有奇志(卷一九一第一五張) 不法眷之厚”는 오류이다. “幼而有奇志不(卷一九一第一五張) (제16張 결락) 法眷之厚”로 고쳐야 한다.

권제194: 제1장 勳, 제2장 誦, 제3장 運, 제4장 建, 제5장 建, 제6장 建, 제7장 昭, 제9장 昭, 제11장 治, 建, 제12장 治, 建, (武), 誦

권제195: 제1장 昭, (武), (隆), 運(2), 제2장 欽, 運, 제3장 運, 제4장 運, 徽, 제5장 運, 제6장 運, 隆(2), 제7장 (武), 昭, 제8장 運(2), 隆, 제9장 運, 欽, 제10장 昭(1행), 隆, (運), 제11장 欽, (武), 제12장 欽, 제14장 運, 隆, 徽, 제15장 顯, 제16장 運, 제17장 建, (武), (運), 제18장 詢, 제19장 運, (亨)

※ ‘()’ 표시는 고려 국왕명의 글자 말획을 묵서로 가필한 것임.

위의 『석원사림』의 고려 왕명의 피휘는 태조 建, 혜종 武, 광종 昭, 성종 治, 목종 誦, 현종 詢, 덕종 欽, 靖宗 亨, 문종 徽, 순종 勳, 선종 運, 숙종 顯, 세조 隆이다. 예종의 이름은 佚이지만 현전 자료에서는 확인되지 않는다. 이 왕명의 피휘는 글자의 말획을 결획한 것으로 현전본의 일부 글자에는 말획을 묵서로 기입한 것이 확인된다. 고려 국왕별 피휘의 사례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사진 3> 『석원사림』 고려 국왕명 피휘의 결획 사례

위의 <사진 3>과 같이 고려전기 역대 국왕의 왕명의 피휘는 태조 왕건부터 숙종(1095-1105)까지 왕명의 마지막 필획을 결획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 가운데 혜종 ‘武’, 덕종 ‘欽’ 등은 말획의 결획이지만 묵서로 가필한 흔적이 다수 있다. 다만, 정종의 ‘亨’의 사례는 현전 자료에서 1건이고 묵서 가필의 흔적이 명확치 않다. 태조 왕건의 선대인 세조 隆建과 정종의 ‘亨’에 대해 『고려도경』에 正宗 ‘隆’, 穆宗 ‘亨’의 동명이 있어 이견이 있지만,¹¹⁾ 본고에서는 『고려사』의 기록에 따른다. 이로 보면 고려전기 『석원사림』의 편찬 시기에는 고려 역대 왕명의 피휘의 원칙이 충실하게 지켜졌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석원사림』의 본문에 墨等이 일부 확인되며, <사진 4>와 같다. 권191 『眞觀禪師碑』의

11) 稻葉岩吉, “高麗時代の文籍,” 『支那學論叢』(1926), 26-29. 이에 대한 관련 자료는 「世次」, 『宣和奉使高麗圖經』 卷2. “後詢卒 子隆立 優柔不斷 政荒力屈 憚於北虜 遂復臣事之 而貢使又絕 隆卒 私諡曰正 子德王欽 欽弟穆王亨.”

제5장 4개, 제6장 2개, 제7장 3개, 제8장 3개, 권193 「道度禪師碑」 제1장 1개, 제2장 1개, 제4장 2개, 제5장 1개, 제6장 2개, 제7장과 제8장에 각 1개이다. 이 묵등은 글자의 판독이 불가능한 경우나 저본의 결락 등으로 후대에 추가 판각을 위해 해당 글자의 판면을 그대로 둔 것이다. 『석원사림』은 고려시대 간행시의 묵등인지 후대의 복각 또는 중수시 저본의 결락에 따른 묵등 처리인지 분명치 않다.

『석원사림』의 묵등은 고려의 「진관선사비문」에 유독 다수 확인되는데, 진관선사비는 현전하지 않지만 탁본과 판독문이 있어 묵등 부분을 비교할 수 있다.¹²⁾ 『석원사림』의 「진관선사비」 수록 비문과 『한국금석전문』의 판독문을 대교하여 묵등의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사진 4> 『석원사림』의 묵등

<표 1> 『석원사림』 「진관선사비」의 묵등 대교

권자-장자-행	『석원사림』	『한국금석전문』	비고
권191-4-전7	宗師如■■■■自此	宗師如火投水自此	
권191-4-전9	無心■■■■棲禪有地	無心豈使棲禪有地	
권191-4-후1	未別得程途■■探赜遽	未別得程途及探慈遽	
권191-4-후10	以■■■■猶拘小得方之■■未足	以塩泉猶拘小得方之■■未足	
권191-5-전4	未來■■上賞	未來法上賞	
권191-5-후4	如水上之泡■■似空中之電	如水上之泡特似空中之電	
권191-6-전3	彦■■住原州文正院	彦忠住原州文正院	
권191-6-후3	恐逾時■■漸泯	恐逾時而漸泯	
권191-6-후10	歸于湛寂■■者廓然	歸于湛寂聖者廓然	금석문 乎
권191-7-전1	諸法■■明一心燈	諸法相明一心燈	
권191-7-전9	分其七■■■■楡四居蘭若	分其七■■■■楡四居蘭若	
권191-7-후3	如此■■昔身出大千	如此今昔身出大千	

위의 <표 1> 묵등 대교 결과와 같이 『석원사림』에 수록된 「진관선사비」에는 12개의 묵등이 확인된다. 이를 『한국금석전문』에 수록된 비문 내용과 비교하면 대부분 판독이 가능하다. 현재 묵등으로 처리된 사유는 분명치 않지만, 『석원사림』의 간행 당시 묵등이라면, 판하본의 작성시 대본인 탁본이나 필사본의 판독이 불가하였을 경우를 추정할 수 있고, 후일 판각을 위해 해당 부분을 판면으

12) 智谷寺眞觀禪師碑는 『韓國金石全文』 中世下 (서울: 亞細亞文化社, 1984); 『朝鮮金石總覽』 上 (朝鮮總督府, 1919) 등에 수록되어 있다.

로 남긴 셈이다. 혹은 조선시대에 복각이나 중수시 저본의 결자나 판독 불가도 추정해 볼 수 있어 향후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

2.3 『석원사림』의 문자이동: 『광흥명집』 권제23의 誄文 대교

『석원사림』의 권195에는 승려의 뇌문 8수가 수록되어 있다. 이 뇌문의 『東晉支曇諦法師誄』 등 8수는 『광흥명집』 권제23의 僧行篇 諸僧誄行狀에 동일한 순서와 내용으로 수록되어 있다. 고려시대에 『광흥명집』은 초조대장경본이나 단행본이 유통되었겠지만, 현전본은 초조장본의 권7, 권13-19, 권21, 권22, 권24-28 등 총 15권뿐이다. 또한 『석원사림』과 비교할 수 있는 초조장본 『광흥명집』 권제23은 현전하지 않지만, 초조장을 반영한 재조장이나 金藏에는 권23이 현전하므로 상호 대교가 가능하다. 『석원사림』을 중심으로 재조장본과 조성장본을 대교한 誄文의 문자이동은 다음의 <표 2>와 같다.

<표 2> 『석원사림』의 권195 뇌문의 문자이동¹³⁾

연번	張次	行次	석원사림	조성장	재조장	연번	張次	行次	석원사림	조성장	재조장
1	1b	3	出	生	生	22	15b	6	耶	邪	邪
2	2b	2	其此	此	此	23	17a	5	絃	弦	弦
3	2b	4	闕/惑	闕/惑	闕/惑	24	17b	9	德稱	德而稱	德而稱
4	3a	5	蕭	簫	簫	25	18a	7	欲盖脩	慾盖修	慾盖脩
5	3a	5	仞	刃	刃	26	18b	10	藉	籍	籍
6	3a	6	無	无	无	27	19A	8	埃	挨	挨
7	4a	6	麾	徽	徽	28	2a	6	吝	吝	忝
8	4b	8	巖	巖	巖	29	4a	6	斤	斤	行
9	5a	4	曦	羲	羲	30	11b	4	榮	榮	勞
10	7a	5	剛絜	野絜	野絜	31	11b	9	羅	羅	羅
11	7b	2	桑	栞	栞	32	14b	9	艱	艱	難
12	7b	4	揖	捐	捐	33	16b	2	惟	惟	情
13	8a	3	不/扉	弗/扇	弗/扉	34	17a	1	丸	丸	紈
14	8a	6	暫	誓	誓	35	6b	4	移時	時移	移時
15	8b	4	藉	籍	籍	36	7a	8	歡	觀	歡
16	10b	8	辯/歎	辨/歎	辨/歎	37	7a	10	永/理	永/埋	永/理
17	10b	10	慧	惠	惠	38	12a	6	規	規	規
18	11a	7	隨	隋	隋	39	12a	10	捨	舍	捨
19	12a	2	詞	辭	辭	40	12b	4	捨	舍	捨
20	12a	8	絃	弦	弦	41	11b	7	忝	名	去
21	14b	4	耀	輝	輝	42	14b	5	繫/柳	蟄/柳	蟄/柳

13) 문자이동은 『大正藏』에 교감기가 있는 글자에 한하여 『석원사림』, 재조장, 조성장을 상호 대교하였다.

<표 2> 『석원사림』의 권195 너문의 문자이동 사례는 42건이지만, 이체자나 동일한 사례가 반복되는 자료는 제외하였다. 위의 사례를 유형별로 분류하면 제1유형은 석원사림 단독 異字 27건(연번 1-27), 제2 유형은 석원사림과 조성장 同字 7건(연번28-34), 제3유형은 석원사림과 재조장 同字 6건(연번35-40), 제4유형은 3본 전체 異字 2건(연번41-42)이다.

위의 사례의 대부분은 이체자, 통가자 등으로 유사한 해석이 가능한 것이지만, 필사나 판각의 오류로 추정되는 글자가 있어 해석이 달라지는 경우도 확인된다. 유형별로 대표적인 사례를 살펴보면, 제1유형의 연번③의 원문은 ‘然而關情期於欣感之境’이며, 재조장과 조성장본의 원문은 ‘然而關情期於欣戚之境’이다. ‘感과 戚’은 슬퍼하다는 의미로 통용되겠지만, ‘關과 關’은 의미의 차이가 있다. 후대 남송의 사계장, 원대의 보령장, 명대의 경산장은 모두 ‘關과 感’이다.

제2유형의 연번 ⑩은 석원사림과 조성장본은 ‘榮’, 재조장본은 ‘勞’이며,¹⁴⁾ 그 원문은 ‘法師至止鄙人榮役’이다. ‘至止’의 대구로는 ‘榮役’이 자연스러워 보인다. 이어지는 연번 ⑪ 원문은 ‘徵集何緣晚節羅豐’이며, ‘병에 걸렸다’는 의미의 ‘羅’로 추정된다. 제3유형의 연번 ⑩은 ‘歡과 觀’의 이동이며,¹⁵⁾ 원문은 ‘鬱寂丘壑求歡於物類’이다. 물류에서 기쁨을 구하였다는 의미가 타당하다. 연번 ⑪은 ‘永과 外’, ‘理와 埋’의 이동이며, 원문은 ‘進趣慕復永之道 理身法服’이다. 후대의 대장경본의 문자이동은 대체로 조성장본의 그것과 같다. 제4유형의 연번 ⑫는 繫와 槲이 각각 ‘蟄/槲’이며, 원문은 ‘單繫土槲’이며, 조성장과 재조장은 각각 ‘單蟄土槲, 單蟄土槲’이다. 해석상 미묘한 차이는 있으나 ‘죽어 묻힌다’는 의미에서는 상통한다.

이상으로 『석원사림』의 너문의 문자이동의 유형과 경향성을 검토하였다. 『석원사림』 권195 너문의 저본을 살펴보면, 위의 제1유형에서 석원사림본 문자만 다르고 조성장과 재조장본 문자는 동일한 것이 27건으로 다수인데, 조성장본이 개보장 재수정본의 복각이고, 재조장본은 개보장 수정본의 복각이라면,¹⁶⁾ 『석원사림』의 저본은 무엇이었을까. 『석원사림』은 초조장본을 저본으로 필사 판각하였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분명치 않다. 한편, 『석원사림』의 피휘는 고려조의 피휘만 있는데, 『광흥명집』 권23의 재조장본은 송조의 피휘자인 ‘敬’, ‘竟’, ‘弘’에 대해 말필을 결획하는 피휘가 충실히 반영되었고, 조성장본은 ‘弘’의 결획만 확인된다. 『석원사림』의 저본에 대해서는 개보장본을 반영하여 조조한 조성장본과 재조장본과의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3. 『석원사림』의 구성과 내용

『석원사림』의 구성을 살펴보면, 편찬 당시에는 250권이었지만, 현전본은 권제191에서 권제195까

14) 思溪藏, 普寧藏, 徑山藏은 모두 ‘榮’이다.

15) 思溪藏, 普寧藏, 徑山藏은 모두 ‘歡’이다.

16) 유부현, 『고려대장경의 구성과 저본 및 판각에 대한 연구』 (시간의물레, 2014), 303.

지의 5권 1책의 영본이다. 권제191에서 권제193까지는 비문, 권194는 碣·誌, 권195는 誄이며, 권191에 碑38, 권192에 碑39, 권193에 碑40이 배치되어 있고, 각 4수의 비문이 수록되어 있다. 이를 권별로 분류하여 구성과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¹⁷⁾

『석원사림』 권191을 구성하는 세목과 수록 비문을 살펴보면, 권수제는 『釋苑詞林 卷一九一 碑三十九』이고, 행을 바꾸어 세목을 두어 ‘유감’ 아래 王融 찬술의 高麗康州智谷寺眞觀禪師碑, 錢易 찬술의 宋天台淨光大師碑와 宋衢州烏巨山開明禪師碑 2수, 章衡이 찬술한 宋承天寺宗禪師塔碑 등 비문 4수가 실려 있다. 세목의 ‘유감’은 사전적 의미로는 마음속 깊이 간직한 결연한 심지나 의지를 말하는데,¹⁸⁾ 비문의 내용을 통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진관선사 석초(912-964)는 속성은 안씨, 중원부 출신이며, 928년 법천사 현권율사에게 구족계를 받았다. 고려초 940년에서 946년까지 중국 전당 지역의 龍冊에게 나아가 6년여의 오랜 기간 구법하였다.¹⁹⁾ 949년 광종의 귀의를 받아 지곡사, 959년에는 구산선사에 주석하였다. 『석원사림』에 수록된 것은 이러한 석초의 구법 의지와 활동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다음의 의적(919-987)은 송대 천태종의 인물이며, 胡氏이고 溫州 출신이다. 의적은 19세에 구족계를 받고 청송율사에게 『南山鈔』를 배워 계율학에 통한 이후에 천태산으로 가서 지관에 힘썼으며 螺溪道場을 열어 천태교학을 펼쳤다. 당말 오대시기에 천태종 불전이 일설되자 오월왕 錢俶에게 권하여 고려와 일본 등지에서 천태 불서를 구하도록 하였다. 이후 오대시기 이후 천태종이 흥기하게 되었는데 의적의 불법 재흥의 활동과 의지와 관련이 있다.²⁰⁾ 고려승 義通은 의적을 이어 중국 천태종 제16조가 되었다.

개명선사는 범명이 의안(?-993)이고, 속성은 허씨, 雪 지역 출신이다. 의안은 鏡淸 道愆에게 사법하고 吳興에서 사찰을 창건하였고, 거듭 唐山 德嚴에게 법을 구하였다. 당산의 문하에서 선정 수행시 이적을 보였고, 개보 연간 江郎巖의 龕室에 들어가 외부와의 출입을 단절하고 入定 수행하였으며, 그 다음 해인 974년에 해제시 여러 이적이 일어났다. 이러한 의적의 깨달음을 위한 선정 수행과 신이한 형적은 국왕을 비롯한 원근의 귀의를 받았다.

承天寺 宗禪師는 범명이 傳宗이고, 성은 장씨, 漳州 출신이다. 운문종 설두중현(980-1052)을 계승하였으며, 송대 장형이 비문을 지었다.²¹⁾ 『석원사림』에 수록된 전종의 비명은 1장 약 400여 글자가 걸라되어 전체 내용의 파악이 곤란하며 어느 부분을 채택하였는지 분명치 않다. 전종은 조사

17) 『석원사림』의 구성과 내용에 대해서는 朴鎔辰, 『義天 그의 생애와 사상』(해안, 2011), 186-199의 내용을 중심으로 수정 보완하였다.

18) 『大漢和辭典』 권4, 大修館, 1968, 534.

19) 眞觀 釋超는 940-946년에 구법하였는데 당시 龍冊 曉榮의 나이가 21세로 연소하였기 때문에 수학하지 않았고, 『경덕전등록』 권25의 永明 延壽의 전기에 나오는 翠岩 舍參禪師로 보는 견해가 있다(金龍善, “高麗 前期의 法眼宗과 智宗,” 『江原佛敎史研究』(小花, 1996), 100).

20) 『釋門正統』 권4; 『佛祖統紀』 권8, 『宋天台淨光大師義寂傳』; 『宋高僧傳』 권7(『대정장』 권50, 753쪽).

21) 『大覺國師外集』 권제9에는 장형이 지은 『楞嚴大師塔重修記』와 『杭州慧因院賢首敎藏記』가 수록.

의 전등을 이어 36년간 미혹한 성정을 개발하기 위해 수행하였다. 이상의 ‘유감’ 4수의 비명은 그 사전적 의미와 같이 불법에 대한 깊은 의지와 수행과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은 『석원사림』 권제192는 권수제 아래 ‘碑39’이고, 행을 바꾸어 權化와 放達에 각 2수를 배치하였다. 다만, ‘방달’의 비문은 무성화상의 비명과 비음기에 해당한다. 그 구성과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3> 『석원사림』 권192 세목과 수록 비문

세목	제목	찬자	승명	생몰	비고
權化	梁東陽郡雙林寺傳大士碑	徐 陵	傳大士	497-569	『漢魏六朝百三名家集』 『徐僕射集』 第二, 『四部叢刊』 集部
	宋定安院醵和尙碑	呂升卿	醵和尙	?-1083	
放達	唐岳州 聖安寺 無性和尙碑 此下二首 ²²⁾	柳宗元	無性和尙	唐代	『全唐文』 12 제587권/ 『樂邦文類』 권3
	碑陰記	柳宗元	"	"	『全唐文』 12 제587권

『석원사림』 권제192 비39에는 권화와 방달의 세목 아래 각 2수의 비문이 수록되어 있다. 부대사 비문은 『漢魏六朝百三名家集』, 무성화상비는 『전당문』에 수록되어 있지만, 박탁화상비는 다른 자료에서 잘 찾아지지 않는다. 권화는 범어 avatara에 해당하며, 化現·應現의 뜻으로, 불보살이 중생을 제도하고, 신통력으로 각종의 몸이나 사물로 임시로 보이거나 화현함을 의미한다. 방달은 마음이 활달하여 남의 구속을 받지 아니함을 의미한다.²³⁾

부대사(497-569)는 동양군 烏傷縣人으로 쌍림사에 주석하였으며 원근의 귀의가 이어졌다. 그는 20일 이상 불식하는 등 수행과 신체의 변화를 나타내는 이적을 보였으며, 유마거사와 문수사리가 각각 長子와 儒生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과 같이 신통 변화하고 불가사의하였다고 한다. 그는 양나라 고조에게 글을 올려 불법으로 국가를 다스리고 백성을 보호하고 기를 것을 조언하였다. 또한 당시 천태 지의 등의 후우가 있었다.

박탁화상(?-1083)은 법명은 奉侍, 眞定府 출신이며, 성은 石氏, 棣州의 文應화상에게서 심인을 받았다. 송대 박탁화상의 권화는 중생을 교화한 기이한 행각을 다수 전하고 있다. 그는 다양한 불교의례를 설행하여 교화하는 한편 가향을 다니며 무애의 교화행을 행하여 위로는 종실로부터 아래로는 서민에 이르기까지 많은 귀의가 있었다.

다음의 세목인 방달과 관련하여 비문을 살펴보면, 무성화상은 성씨와 출신은 분명치 않다. 그는 처음 房州 龍興寺에 살다가 岳州 聖安寺로 옮겨 50년 동안 산문을 벗어나지 않았다. 비음기에는

22) 『樂邦文類』 권제3에 수록된 ‘무성화상비’는 제명이 ‘岳州無姓和尙碑’라 하여 차이가 있고, 찬자 ‘柳宗元’도 ‘禮部柳子厚’로 표기되었다. 비문의 내용을 대교하면 비명의 마지막 부분에 『석원사림』의 ‘薦是昭銘 刻茲貞石’이 『낙방문류』에서는 ‘寫是昭銘 刻茲玄石’으로 다르다. 이는 원비와의 대교가 필요하다.

23) 『勸化』, 『佛光大辭典』, 6891하.

선사의 품성이 그 어디에도 동요되는 바 없어, 인근 악주수령도 굴복시킬 수 없었고, 인근 군현의 귀의가 많았음을 특기하였다.

『석원사림』 권제193 碑40의 구성과 내용을 살펴보면, ‘遺身’ 아래 梁小莊嚴寺道度禪師碑, 苦行에 唐南嶽彌陀和尚碑, 神尼에는 唐常州天興寺二大德比丘尼碑와 宋申國大長公主正覺大師碑의 2수가 수록되었다. 이 가운데 유종원이 찬술한 彌陀和尚碑는 『全唐文』 12 제587권에 수록되어 있다.

권193 비40의 첫 번째 항목은 ‘유신’인데, ‘유신’은 자기 몸을 잊고 불법을 중히 하는 것을 말한다. 『속고승전』과 贊寧(919-1002)의 『송고승전』에는 고승의 분류 기준으로 ‘유신’의 항목이 있다. 『석원사림』에서의 ‘유신은 重法亡軀・發勇猛之心・奮精進力・務求佛道로 해석할 수 있다. 한편 『고승전』류의 분류에 고행과 신니의 항목은 없다.

‘유신’ 항목의 道度禪師(?-526)는 속성은 劉씨, 洛州 출신이다. 그는 20세에 스스로 머리를 깎고 崇高山 城王寺의 佛陀선사에게 귀의하여 선정 수행하였다. 506년에는 사찰을 세웠는데 황제가 小莊嚴寺라 사명하였다. 518년에는 『대품경』 주석서를 지었고, 『법화경』과 『열반경』을 만들어 유통하였다. 526년 楊洲 若野山에 들어가 입적하기까지 정진하여 불도를 힘써 구하는 모습으로 자신의 몸을 버리고 소유에 자제한 모습과 활동이 나타난다. 해교의 『고승전』에 수록된 『釋法悅傳』에도 도도선사의 고결한 수행을 전하고 있다.

‘고행’은 육체의 욕망을 斷除하고, 힘든 수행을 감내하는 것을 의미한다. 彌陀和尚(712-802)은 당 대종대 국사인 法照의 스승이었다. 미타화상은 처음에는 成都의 唐公에게 배웠고, 뒤에 衡山の 承遠를 따라 수행하였다. 미타화상의 모습은 처음에 산의 서남쪽 암석 아래 반주도랑에 거주하였는데, 불도를 수행하면서 의식의 구애가 없이 고행하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다. 그의 대종교화는 염불전수의 아미타신앙이 중심이 되었고, 당 대종대에 주석 사찰은 미타사로 勅賜되었다.

세 번째 항목인 ‘신니’는 덕이 매우 높은 비구니로서 지식과 수행이 넓은 사람을 의미한다. 당의 梁肅이 지은 常州 天興寺의 비구니 대덕 慧持(-712-), 慧忍, 두 자매 승려의 신이한 기연을 소개한 것이다. 이들은 각 5세와 3세에 『법화경』 강경을 들은 것을 인연으로 출가하여 지관과 『법화현의』를 익히며 법화삼매에 드는 등 법화도량을 실행하는 법화신앙의 소유자였다.

송 태종의 7녀인 神國大長公主(987-1024)는 송 진종 2년(1009)에 법명 淸裕, 법호 報慈正覺大師를 하사받았으며, 사찰을 세워 崇眞資福禪院이라 勅賜되었다. 1018년에 申國에 진봉하고 大長의 칭호를 더하는 등 황실의 후우가 있었다. 비구니 大長공주는 資福禪院에서 정토를 회구하고 계율 관련 경전을 강설하는 한편 『법화경』을 독송하고 경전을 열독하였음을 전하고 있다.

『석원사림』 권194에 수록된 자료는 갈 4수, 지문 9수 등 모두 13수이다. 이를 구분하여 정리하면 다음의 <표 4>와 같다.

<표 4> 『석원사림』 권194 수록 갈·지문

세목	제목	찬자	승명	생몰	비고
碣	唐慈恩寺大法師基公碣文	李 乂	窺基	632-683	
	唐江州興果寺律大德湊公塔碣銘	白居易	湊公	744-817	『全唐文』 14 제678권/ 『四部叢刊』 集部 白氏長慶集권24
	唐護國寺威師碣	皇甫湜	威師	?-770	『全唐文』 14 제678권/ 『四部叢刊』 集部 皇甫持正文集권6
	故三學法師緡公碣銘	和 凝	緡公	?-925	
誌	誌公大師墓誌銘	陸 僊	誌公	?-514	『漢魏六朝百三名家集』 「陸太常集」
	同泰寺故智寂師墓誌銘	梁簡文帝	智寂	미상	『漢魏六朝百三名家集』 「梁簡文帝集」
	宋姬寺慧念法師墓誌銘	梁簡文帝	慧念	미상	『漢魏六朝百三名家集』 「梁簡文帝集」
	甘露鼓寺敬脫法師墓誌銘	梁簡文帝	敬脫	미상	『漢魏六朝百三名家集』 「梁簡文帝集」
	湘官寺智蒨法師墓誌銘	梁簡文帝	智蒨	미상	『漢魏六朝百三名家集』 「梁簡文帝集」
	淨居寺法昂法師墓誌銘	梁簡文帝	法昂	미상	『漢魏六朝百三名家集』 「梁簡文帝集」
	楊州僧正智寂法師墓誌銘	梁簡文帝	智寂	미상	
	宋明義大師塔誌銘	釋慧勤	明義	1008-1066	慧念敬脫智蒨法昂楊州僧正智寂
	黃氏女道清誌	楊 億	道清	-1017-	

碣의 자료를 살펴보면, 자은사 基公은 당대 유식학승 규기(632-683)이다. 갈문에서는 그의 가계와 출생을 간략히 제시하고, 현장에게 출가하여 수학한 일을 기술하였다. 규기는 二諦와 유식의 章과 『법화경』과 『유가론』의 疏 1백여 부를 지었고, 변론과 설법에 뛰어났다. 그는 매일 미륵상을 조성하고, 매일 보살계를 독송하면서 도솔천에 상생을 원하는 미륵신앙의 소유자였다. 특히 규기는 당 중종과 함께 현장의 문하에서 함께 수학한 점 등이 특기되었다. 다음의 홍과율사 주공(744-817)은 출가후 참선을 하였고, 『수능엄경』을 수지하고 사분비니의 계율을 준행하였다. 당 대종 8년(773)에 승과에 합격하여 칙명으로 강주 홍과사에 주석하였고, 뒤에 동림사로 옮겼다. 817년에 입적하였고 계율에 매진하고 갈마회를 설행한 선과 율의 실천수행이 특기되었다.

호국사 威師(?-770)는 법명이 承威, 속성은 유씨, 하남 낙양 출신이다. 748년에 칙명으로 동도 경애사에 거주하였고, 757년에 河陰의 호국사에 주석하였다. 삼학법사 침공(?-925)은 법명은 弘緡, 속성은 霍씨이며, 12세에 契同禪師에게 출가하여 사분륜·인명·백법·구사론 등 경률론을 배웠고, 유가의 『문집』 10권과 『三寶論』 1편을 저술하기도 하였다. 그는 선관을 닦는 선승이자 미륵신앙의 수행자로 同光 3년(925)에 입적하였다.

묘지의 자료는 모두 9수이며, 송대의 자료를 수록하였다. 첫 번째의 지공대사(?-514)는 속성은 朱, 법명은 保持이며, 출신은 불명이다. 제나라와 송나라에서 이적을 행하였고, 양무제 천감 13년(514)에 華林園 불당에서 입적하였다. 이어 동태사 지적법사 이하 慧念, 敬脫, 智蒨, 法昂, 楊州僧正 智寂 등 6수의 묘지명은 양나라 간문제가 찬술한 것으로 서문은 없고, 명문만이 수록되어 있다.

다음의 묘지명 「宋明義大師塔誌銘」·「黃氏女道清誌」는 송대의 자료이다. 「송명의대사탑지명」

의 명의대사 希觀(1008-1066)은 휘는曇慧, 황제의 사호는明義, 속성은朱, 餘杭郡人으로 10세에 智周上人에게 출가하여 59세인 治平 2년(1066)에 입적하였다. 희관은 처음 悟本대사 淸惠에게 『화엄경』을 배운 이래 覆講과 강론에 능하였다. 또한 그는 『능엄경』, 『금강경』, 『법계관』 등 10여 부의 경전과 논서를 강론하고 불법을 선양하였다. 특히, 『화엄경』의 정행을 강조하는 화엄정행결사를 일으켜 사대부를 포함한 1천여 명의 귀의를 받는 등 화엄종세를 진작시켰다. 찬자 慧勤은 명의대사 희관이 화엄종을 전승하고 호법에 공이 있음을 기록하였다.

『황씨녀도청지』의 황씨녀 도청(-1017-)은 오홍인 유학자 관인 黃吉의 딸로 4세부터 『심경』을 독송하고 7세에는 일심으로 부처를 받들 것을 서원한 이후 혼인치 않고 불도에 정진하다가 天禧 원년(1017) 경 입적하였다. 위와 같이 『석원사림』 권194에 수록된 갈·지문의 자료는 시대순으로 배치하였고, 고려와 송나라의 자료를 뒷부분에 수록하였으며, 이 가운데 『기공갈문』 등 갈문 2수, 『지적법사묘지』 등 지문 3수는 중국의 문집이나 총서에도 수록되지 않은 희귀 자료이다.

다음은 『석원사림』 권195이며 너문으로 구성되었으니 다음의 표와 같다.

<표 5> 『석원사림』 권195 수록 너문

세목	제목	찬자	승명	생몰	비고
誄	東晉支曇諦法師誄	丘道護	支曇諦	347-411	『廣弘明集』
	鳩摩羅什法師誄	釋僧肇	鳩摩羅什	344-413	『廣弘明集』
	武丘法綱法師誄	釋慧琳	法綱	(?-434)	『廣弘明集』
	龍光寺竺道生法師誄	釋慧琳	竺道生	355-434	『廣弘明集』
	曇隆法師誄	謝靈運	曇隆	劉宋代	『廣弘明集』, 『漢魏六朝百三名家集』 『謝康樂集』 권1
	廬山慧遠法師誄	謝靈運	慧遠	334-416	『廣弘明集』, 『漢魏六朝百三名家集』 『謝康樂集』 권1
	若耶山敬法師誄	張暢	敬法師	劉宋代	『廣弘明集』
	新安寺玄運法師誄	釋慧林	玄運	429-497	『廣弘明集』

위의 <표 5> 『석원사림』 권195에 수록된 동진 지담제법사외 등 8수는 『광홍명집』 권제23의 僧行篇 諸僧誄行狀에 동일한 순서로 모두 수록되어 있다. 이는 고려대장경 등 대장경 입장본 『광홍명집』의 자료 수록 순서와 제목이 같은데, 다만 일부 자료에는 ‘若邪山敬法師誄并序 宋張暢, 新安寺釋玄運法師誄并序 釋慧林’과 같이 ‘并序’라는 2자가 추가되어 있지만 수록 내용은 동일하다.

너문의 인물을 간략히 살펴보면, 支曇諦(347-411)는 康居國 출신이고, 吳興郡으로 옮겨 거주하였으며, 약관의 나이에 도를 밝혔고, 도속이 공경하고 귀의하였다고 한다. 중년에는 세속을 떠나 오홍군의 岷山에서 20여 년 교화하였다. 鳩摩羅什(344-413)의 너문은 승조가 찬술하였고, 출신 등의 내용은 없고, 대도의 종장으로 진나라의 부견과 요흥이 맞으려 했다는 고사를 소개하면서 법도의 융성하고 높음을 찬탄하였다. 법강법사는 송문제 元嘉 11년(434)에 입적하였고, 세속을 떠나 한적한 곳에

처해 불도를 닦는 성실함을 기록하였다. 다음은 축도생법사(355-434)로 범강법사와 같은 해에 廬山에서 입적하였다. 성은 魏씨, 彭城 출신이며, 法汰법사에게 나아가 축발하였다. 그의 불학은 구마라집의 대승과 제바의 소승의 요체를 창달하고 깨우침을 뇌사를 지어 찬미하였다.

담릉법사는 부귀한 가문의 출신으로 영화를 버리고 출가하여 廬岳에 은거하였고, 이때 뇌문의 찬자 사령운과 교유하였고, 그의 입적에 즈음하여 뇌사를 지어 감회를 표하였다. 사령운은 여산혜원법사(334-416)의 뇌문도 지었는데, 혜원의 생전의 교화에 대중이 운집하고 수행과 도화를 기술하였다. 다음의 약야산 경법사는 위나라에서 태어나 廬山의 혜원의 문하에 의탁하였다. 낙양 등지를 유력하고 혜원의 입적후 약야산에서 20여 년 주석하였다. 신안사 현운법사(429-497)는 돈황 출신으로 계율과 학행이 뛰어나 국왕과 왕실 등의 청송과 귀의가 있었고, 불법을 진작시킨 인물임을 기술하였다.

이상으로 『석원사림』의 구성과 내용을 검토하였다. 권제191에서 권제193까지는 비문, 권194는 갈·지, 권195는 뇌문이며, 권191에 비38, 권192에 비39, 권193에 비40이 배치되어 있고, 각 4수의 비문이 수록되어 있다. 『석원사림』은 비명에 대해서는 유감, 권화, 방달, 유신, 고행, 신니 등의 일정한 기준을 가지고 분류하였으며, 갈·뇌·묘지명은 별도의 유별 세항목을 두지 않고 수록하였지만, 불교 제문의 유형별 분류라는 측면에서 유서의 성격을 갖는다.

4. 맺음말

『석원사림』은 ‘불가의 文苑’을 의미한다. ‘詞林’의 字意는 시문 등의 모음을 의미하며, 文林·文園이라고도 한다. 『석원사림』은 고려시대 대각국사 의천(1055-1101)이 수집하였던 불교의 제문을 그의 사후 원경왕사 낙진과 그의 문도 각순 등 화엄종 문도가 불교의 ‘事, 記 등 잡문’을 유별로 편정하여 간행한 일종의 불교 유서에 해당한다.

『석원사림』의 간행은 의천의 사후 1101년에서 1108년 사이의 어느 시점에 완성되어 간행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석원사림』은 250권이지만 권191에서 권195까지 영본 5권 1책이 전존하며, 서울대학교 규장각 소장본이며 국내외 유일본이다. 『석원사림』에는 고려전기의 역대 왕명에 피휘가 확인되며 태조 建, 혜종 武, 광종 昭, 성종 治, 목종 誦, 현종 詢, 덕종 欽, 정종 亨, 문종 徽, 순종 勳, 선종 運, 숙종 顯, 기타 隆이다. 한자의 마지막 필획을 결획하는 형태이다. 『석원사림』에는 목등이 다수 확인되는데, 이 가운데 고려시대의 『진관선사비』에는 12개의 목등이 확인된다. 『석원사림』의 편찬 시에는 판독이 불가하였기에 후일 再刻을 위해 해당 부분을 판면으로 남겼거나 혹은 후대 복각 및 중수 시 저본의 판독 불가가 반영된 것으로 추정된다.

『석원사림』의 구성과 내용을 살펴보면, 현전본의 권191에서 권193까지는 비문, 권194는 갈·지,

권195는 뇌문이다. 권191의 비집 38 유감에는 석초, 의적, 의안, 전중, 권192 비집39 권화에는 부대사, 박탁화상, 방달에는 무성화상, 권193 비집40에는 유신에 도도선사, 고행에 미타화상, 신니에 천홍사 비구니, 신국대장공주의 비명이 수록되어 있다. 권194에는 갈·지문이며, 갈문에는 규기, 홍과율사 주공, 승위, 홍침의 4수, 지문에는 지공, 同泰寺 智寂, 慧念, 敬脫, 智菴, 法昂, 楊州智寂, 明義大師, 黃氏女道淸의 9수이다.

『석원사림』의 권195에는 지담제, 구마라집, 법강, 축도생, 담응, 혜원, 경법사, 현운법사의 뇌문 8수가 수록되어 있다. 이는 『광흥명집』 권제23의 승행편 제승회행장에 동일한 순서와 내용으로 수록되어 있다. 고려시대에 『광흥명집』은 초조대장경본이나 단행본이 유통되었겠지만, 현전본은 초조장본의 권7, 권13-19, 권21, 권22, 권24-28 등 총 15권뿐이다. 또한 『석원사림』과 비교할 수 있는 초조장본 『광흥명집』 권제23은 현전하지 않지만, 초조장을 반영한 재조장이나 조성금장에는 권23이 현전하므로 상호 대교를 통해 『석원사림』의 저본이나 계통의 단서를 추정할 수 있고, 문자이동을 통해 『석원사림』의 정본화에 참고할 수 있다.

『석원사림』의 편찬은 의천의 사후 낙진 등 화엄종 문도에 의하여 국가적 사업으로 수행된 대규모 편찬 사업이었다. 특히 고려전기까지 전해진 동아시아 한문불교문화권의 교·선종을 망라한 방대한 불교의 제문을 집대성한 점에 그 특징이 있다. 또한 12세기 고려에서 이루어진 『석원사림』이라는 유서 편찬 사업은 동아시아 한문불교문화권에서 불교 상호 교류를 통해 이루어진 점에서 그 교류사적 의의와 함께 유문을 나누어 편정한 방대한 유서로서 불교문헌학적 의의는 크다. 향후 『석원사림』의 현행본의 수록 자료를 중심으로 11-12세기 동아시아 한문불교문화권의 불교 유서와의 상관성 등은 검토하고자 한다.

<참고문헌>

1. 자료

『釋苑詞林』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청구기호: 『古貴 4016-15』

『智谷寺眞觀禪師碑』, 『韓國金石全文』中世下(서울: 亞細亞文化社, 1984)

『韓國佛教全書』, 『釋門正統』, 『佛祖統紀』, 『宋高僧傳』, 『大覺國師外集』, 『樂邦文類』, 『續高僧傳』

2. 단행본 및 논문

金龍善. “高麗 前期의 法眼宗과 智宗.” 『江原佛教史研究』 (小花, 1996). 100.

朴鎔辰. 『義天 그의 생애와 사상』. 서울: 혜안, 2011.

유부현. 『고려대장경의 구성과 저본 및 판각에 대한 연구』. 서울: 시간의물레, 2014.

大屋徳城. 『高麗續藏雕造攷』. 便利堂, 1937.

- 齋藤光純. “釋苑詞林.” 『高僧傳の研究』. 櫛田良洪博士頌壽記念會編. 東京: 山喜房佛書林, 1973. 823-849.
- 稻葉岩吉. “高麗時代の文籍.” 『内藤博士還曆祝賀支那學論叢』. 弘文堂書房, 1926. 26-29.

3. 웹사이트

『규장각한국학연구원/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원문검색서비스』 <<http://kyudb.snu.ac.kr/>>.

• 국문참고자료의 영어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s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 Kim, Yongsun. 1996. “The beob-anjong(法眼宗) and Iijong(智宗) in the early Goryeo.” *Study of Buddhist History in Gangwon-do Province*, 100.
- Park, Yongjin. 2011. *Uicheon(義天) His life and thoughts*. Seoul: Hyeon.
- Ryu, Boohyun. 2014. *A Study on the bottom book of the ‘Tripitaka Koreana’(高麗大藏經) and its carved book*. Seoul: Siganeuimulle.